



통계청이 발표한 “4월 중 서비스업 동향”

건설경기 빨간불

민간소비가 악화되는 가운데서 내수경기를 지탱해온 건설경기마저 경고등이 켜지면서 내수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.

통계청이 지난 6월 7일 발표한 “4월 중 서비스업 동향”에서 부동산·임대업 분야의 부진이 두드러졌다.

부동산·임대업 매출 증가율(전년 동월 대비)은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세가 본격화되었으며, 올 1~2월 중 마이너스 2%대를 기록하다 지난 3월 마이너스 9.4%로 추락한데 이어 4월 중 마이너스 10.2%로 악화되었다.

부동산업 분야에서 부동산 중개 및 감정업은 4월 중 마이너스 8.1%, 임대업은 마이너스 6.6%, 가계장비 임대업은 마이너스 23.0%를 각각 기록했다.

부동산 거래뿐 아니라 주택 등 건설경기가 급랭하고 있다는 이야기다.

이 분야의 하강세는 도소매업(-0.3%), 숙박·음식점업(-3.2%), 교육서비스업(-6.9%) 등 다른 내수 업종과 비교해서도 훨씬 심각한 것으로 통계청의 조사결과 나타났다.

전문가들은 정부가 건설경기의 연착륙(軟着陸·큰 충격을 동반하지 않는 경기



조절)에 실패할 경우 국내 경기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. 삼성경제연구소는 현재 내수부진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급격히 꺼지면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.

즉, 건설경기가 경착륙(硬着陸·큰 충격을 동반하는 경기조정)할 경우 부동산 버블(거품) 붕괴 → 부동산 가격폭락 → 가계 및 금융회사 부실 → 내수침체 장기화로 이어지는 일본식 장기불황을 맞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.

LG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내 건설수주가 계속 두 자리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경제는 일본에 비해 내성(耐性)이 약해 건설경기 붕괴가 경제 시스템의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.

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수 회복 방안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지만, 기업 투자가 활발히 살아나지 않을 경우 내수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.

이현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“기업발(發)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”며 내수침체가 계속될 것임을 시인했다.